



술 먹고 유치장 간 이야기

음주운전 (DWI)은 형사범이다.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. 여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에 받게되는 불이익과 금전적 손실을 소개함으로서 음주운전의 조치와 예방을 꾀하고자 한다.

한 예를 들어보자. 갑돌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집에 가기전에 간단한 저녁과 함께 폭탄주 4 잔을 마셨다. 즉 맥주 4 잔에 소주 4 잔을 마신 셈이다. 식사후, 한 11 시 경에 동네 길을 가는데 25 마일 속도 제한인데 약 40 마일로 달린 것 같았다.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불을 번쩍이면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닌가. 갑돌씨는 겁이 벌컥 났다. “맥주 한잔 마셨다고 할까, 두잔 마셨다고 할까”, 고민하고 있었다. 경찰은 차를 세운뒤 속도위반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“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”며 “술을 마셨나?”고 물었다. 그때, 갑돌씨는 맥주 두잔을 마셨다고 했다. 문제는 몇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술을 마시고 운전을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다. 경찰은 갑돌씨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하여 걷기 테스트를 했으나 무사히 통과했다. 그런 뒤 경찰이 음주 측정기 (PBT)를 불으라고 하여 불었는데 0.08 이 나왔다. VA에서는 0.08 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.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갑돌씨를 수갑에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. 갑돌씨의 차는 토잉을 해갔다.

경찰에 도착한 갑돌씨는 또 다른 음주 측정기를 불어야 했다. 이 음주 측정기는 힘을 다해 매우 세게 불어야 했는데, 이는 허파속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갑돌씨의 음주 수치가 똑같이 0.08 이 나왔다. 그 뒤부터 경찰은 마치 범인을 다루듯, 갑돌씨의 지문을 찍고, FBI 범죄 신원 조회도 하였다. 이때, 신분 확인과 거짓말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. 주머니에 있는 모든 소지품을 플라스틱 백에 넣은 뒤 방 두 칸 정도 되는 유치장으로 들어갔다.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갑돌씨는 약 두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어서 팔목에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. 유치장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, 갑돌씨의 왼쪽 손 엄지 손가락에 약간의 마비 증세가 왔다고 한다.

유치장에서는 약 10여명의 사람이 북적거렸으며, 경찰은 조그마한 백에 샌드위치 하나와 작은 우유 하나를 건네주었다. 갑돌씨는 샌드위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, 언제 나갈 지 몰라서 다 먹어 치웠다. 갑돌씨는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. 유치장의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. 그러나 밤새도록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잠을 제대로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. 유치장에 전화가 한 대 있기는 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집에서 걱정하는 아내 생각에 몹시 힘들었다.

밤을 꼬박 세우고 아침 10 시 반이나 되어서야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다. 그렇게 유치장에서 8시간 이상 수감되면 술이 깨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보내 준다는 것이다. 유치장을 나오면서 두번 다시는 올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. 그리고 한달 뒤에 법정에 가서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을 또 받아야 했다.

그때 갑돌씨는 필자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였던 것이다. 필자는 먼저 갑돌씨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하고 케이스를 준비하였다. 갑돌씨는 초범이고 또한 운전 기록을 조사해 온 바 아주 좋았다. 그래서 검사 측 소송 합의 (Plea agreement)를 하여, 음주운전 (DWI)을 무모한 운전 (Reckless Driving)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. 음주운전을 무모한 운전으로 낮춘 이유는 음주운전 기록은 10년간 기록에 남는 반면에, 무모한 운전은 1년 밖에 남지 않는다.

한잔의 술 때문에 갑돌씨는 하룻밤의 유치장 신세와 온갖 수모, 그리고 금전적 손실 (토잉비 \$270, 알코올 교육비 \$500, 법원 벌금 \$500 등)을 맛보아야 했다. 더 나아가서, 필자는 갑돌씨에게 또 다시 형사입건되면, 신분상 문제와 해외여행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.